

팔당 댐 工事로 인한 水沒地區의 先史文化 조사발굴

孫 寶 基

本 學會에서는 지난 10月 15日 秋季學術旅行으로 八堂댐 공사장 부근의 地質과 工事現場의 土地地質 제한의 문제를 見學하였다. 아울러 이 댐공사로 인해 水沒되는 先史文化 유적의 발굴 상황을 見學했다. 이 글은 當日 안내와 설명을 했고, 이 지역에 대해 많은 研究를 하신 延世大學校 博物館長 孫寶基 博士의 글이다. 대단히 유익하고 흥미있게 해주신 孫博士께 이 난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편집자 註>

1. 유적지

한강 유역은 우리 나라 선사문화의 유적지로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유사시대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3국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던 지역이었다. 팔당에 댐을 건설하게 된 이후 이 지역의 선사문화 유적지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을 알게 된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70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이 지역을 답사하고 선사 문화의 유물인 석기와 토기를 많이 발견하고 집중되어 발견되는 곳은 그 마모도의 차이로 유적지를 찾아내게 되었다.

이미 발굴된 일이 있는 明逸里, 漢沙里, 岩寺洞, 可樂洞, 驛三洞 등의 유적을 비롯한 선사문화 유적지 이외에도 많은 유적지를 찾을 수 있었다. 이밖에 조선시대의 자기로 이름난 分院里의 가마자리와 道馬里의 것도 발굴된 일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터이었다.

본 박물관 이외에 서울대, 경희대 등도 유적지를 찾는데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이리하여 우리들이 찾아낸 유적지는 대략 타계 석기만이 보이는 구석기 유적지, 빗살문 토기가 주로 보이는 신석기 유적지, 무문토기가 주로 보이는 청동기 시대 유적지, 3국시기의 토기가 나타나는 유적 지등을 찾을 수 있었으나 무문토기와 3국시기의 토기는 같이 섞여 일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교란된 상태에서의 토기들은 마모도 심한 편이고 마모도가 적은 유물들은 원위치에 가까운 편이었다.

선사시대의 河床은 지금보다 7~15미터 정도 더 깊었던 것으로 층적층의 퇴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강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인돌은 10여기부터 20여기까지 보이는 곳이 여러 곳 있었고 고인돌(支石墓)이 모래속에 완전히 파묻혔던 것도 여러 곳이었다. 돌상자 무덤(石棺墓), 돌무더기 무덤(積石塚)도 여러곳에 있었다. 아래에 찾아진 유적지를 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참조 약호 : 구—구석기, 신—신석기, 청—

청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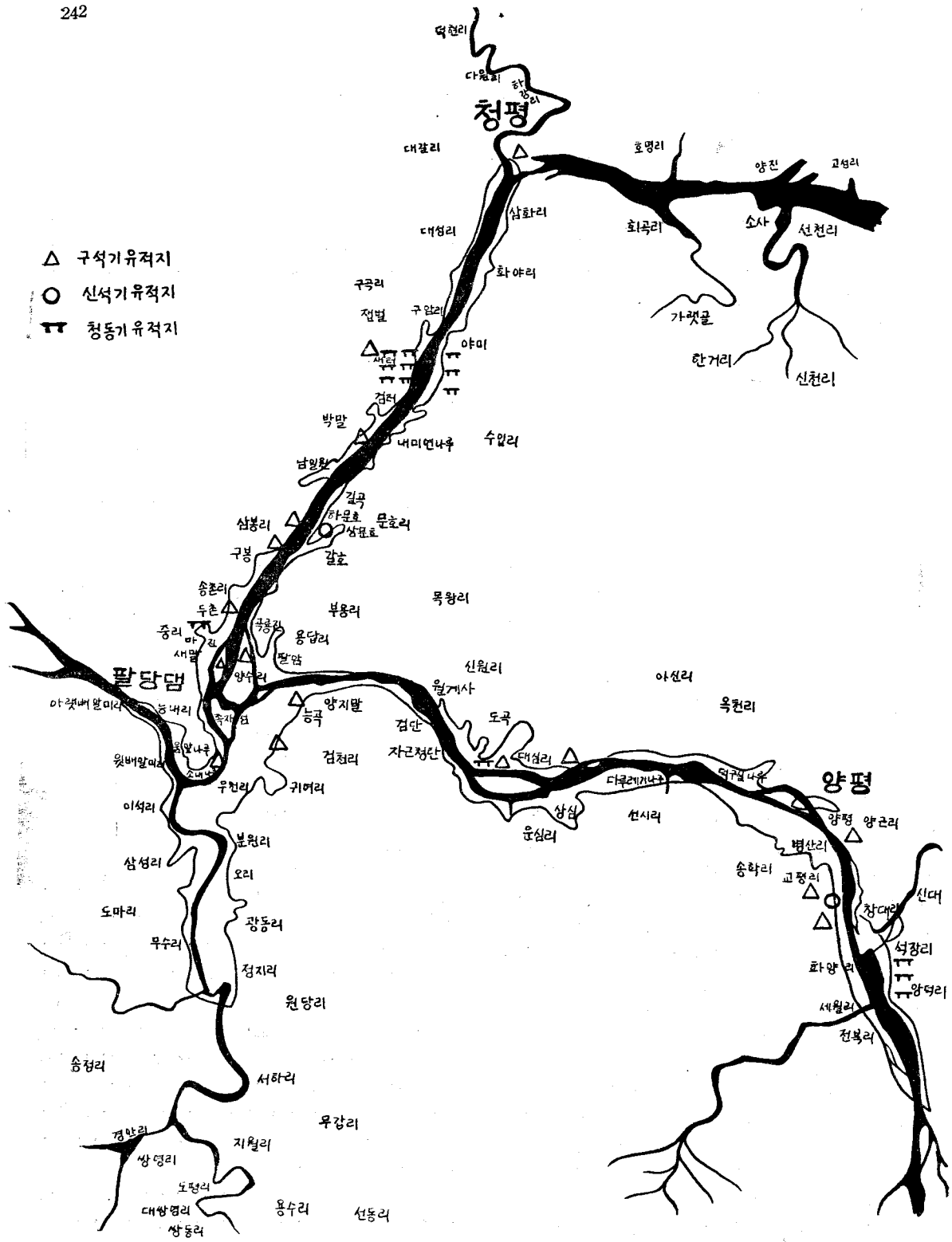
- ㉠. 양평군 양평면 양근리 (청, 신, 구) 연세대 발굴
- ㉡. " " 오빈리 (신, 구)
- ㉢. " 개군면 양덕리 (청, 신, 구) 연세대 발굴
- ㉣. " 강상면 교평리 (신, 구)
- ㉤. " 개군면 (청) 이화여대 및 국립박물관 발굴
- ㉥.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구)
- ㉦. " 강하면 송학리 (구)
- ㉧. " 양서면 대신리 (청, 청, 구) 서울대 발굴
- ㉨. " 양수리 (청, 신, 구) 문화재관리국 발굴
- ㉩. " 서종면 수암리 (청)
- ㉪. " " 문호리 (청) 경희대 발굴
- ㉫. 양주군 외부면 진중리 (청, 신) 숭실대 발굴
- ㉬. " " 능내리 (구)
- ㉭. " " 삼봉리 (구)
- ㉮. " 화도면 금남리 (청, 구) 고려대 발굴
- ㉯. " " 구암리 (신)

2. 지층 · 지질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양평지역은 남한강의 중류지역으로 메안더(曲流) 현상이 심하여 얇은 구능과 층적층이 고은 모래로 되어 여러 겹으로 넓게 덮여 있고 곳에 따라서는 두텁게 층을 여러개 이루며 쌓여 있었다.

평상시의 水位가 22~23미터인데 홍수가 나면 26~30미터에 이르른다고 한다. 지난 8월19일—20일의 강우로 수위가 34미터를 넘었던 것으로 보아 팔당댐이 완공되면 홍수때 물에 잠길 지역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유적지조사도 이러한 범위를 생각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본 박물관에서는 남한강을 끼고 斷崖현상을 이루는 양평군 양평면 양근리에 5개의 구덩을 설정하였으나 地層 構成은 강안의 퇴적에 따른 누른 붉은 색(2.5YR 6/2, 10YR 4/5)으로 나타나는 (색 분류는 정확을 위하



第1圖 八堂峯 부근의 先史文化 유적지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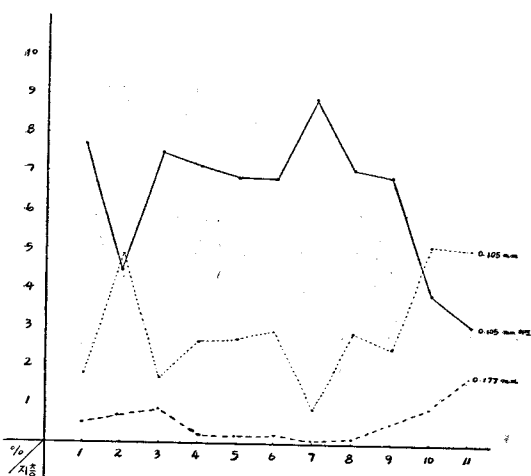
여 토양 표준 색 도표 Munsell Soil Colour Chart를 사용하였다) 모래 층과 약간의 빨이 섞여있는 점흙은 모래층 (10YR2/1~10YR4/3)이 번갈아 쌓여 있었다. (지층단면도 참조)

맨 처음의 구덩에서 각 층위별 토양의 체 분석(Sieve Analysis)을 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9 지층까

지는 0.105mm 이하의 빨 (Silt)과 염토(Clay) 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제10, 11층은 빨~염토의 분량이 3분의 1선 정도로 내려 가고, 고은 모래층이 2분의 1에 해당한다. (뿌리테는 root channel 현상으로 염토가 많은 지층에서 생겨난다.)

表 1. 제 1 구덩 체 분석 결과

체번호	층위	1	2	3	4	5	6	7	8	9	10	11	
80번 0.177mm	%	5.0	6.5	8.0	2.0	2.0	2.0	0.75	0.75	5.25	9.75	17.5	운모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150번 0.105mm		18.0	48.5	17.0	26.0	28.5	29.0	9.25	28.5	24.75	52.0	51.0	
그이하 0.105mm 미만		77.0	45.0	75.0	72.0	69.5	69.0	90.0	70.75	70.0	38.25	31.5	
비	고	표토						뿌리테 포함	"	"			



第2圖 제 1 구덩 체 분석 결과

이 표에서 볼 때 고은 모래층에는 운모질이 많은 편이고 제7, 8, 9층에서는 빨·염토질이 70~90%가 되어 나무의 뿌리가 염토에 쌓여 적철광분과 같이 화석화한 것이 나타난 것을 보아 기후가 따뜻하였을 때 생긴 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이 지층의 토양의 체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여 앞으로 층적층의 퇴적환경과 기후 조건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가하여 제시하겠다. 제 4기층 지질학의 발달을 위하여 이에 표를 넣어 본다.

다음 제 3 구덩의 발굴에서 지층 구성은 다음 지층 단면도와 같다. 이 구덩에서는 표토에서 5.15미터 까지 발굴하였는데 각 층의 토양 색깔은 표시한 것과 같고 빨·염토가 많아지는 층은 제6, 7, 8, 9, 10층에서의 81.5%이상과 제19층의 98%의 경우인데 이 제19지층에서는 역시 뿌리테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특히 다른 것은 제20지층의 산화철(갈철광) 층이다. 물론 다

른 지역에서도 더께(Crust) 현상으로 나타나는 층이다. 이러한 층은 역시 더운 기후조건하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짙고 우리나라 몇 곳에서 본인이 발견한 바 있다. 이러한 층에서 분해되는 철 또는 그 자체가 철기문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층은 밑 부분이 더 검은 색을 나타내고 윗 부분은 붉은 빛이 도는 층인데 매우 단단하고 밑 부분은 포도상으로 흘러내린 현상이 보여 윗 부분의 적철광 성분(Fe₂O₃)이 용해되어 침투해 들어 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성분을 X-ray diffraction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아랫 부분은 SiO₂가 89%, Fe₂O₃ 6.3%, CaO·SiO₂ 3.9%로 나타나고, 윗 부분은 SiO₂ 87.6%, Fe₂O₃ 11.5%로 각각 나타난다. 이 지층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며 그 분포가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가 앞으로 규명되면 제 4기 지층의 연대 확정에 있어서 좋은 단서가 될 수도 있고 고고학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에 그 각 층위의 토양 체 분석표와 그래프를 실어 지층 퇴적환경과 토양 구성관계의 연구에 참고로 하겠다.

산화철층을 연세대학교 地質學科 李大聲教授의 도움을 얻어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윗 부분에서는 갈철광(Limonite) FeO₃·3H₂O; 적철광(Magnetite) Fe₂O₃; 방해석(Calcite) CaO·CO₂(CaCO₃); 견운모(Sericite) 전기석 등이 보였다 하며 아랫 부분에서는 석영과 사장석(CaO·Al₂O₃·2SiO₂)이 보인다 한다. 이층의 토양성분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서도 재미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성 과

성과는 자세히 적으려면 너무 길게 되겠다. 따라서 간단하게 요약하기로 하고 따로 발표될 정식 보고서에 미루고 우선 아래에 간단히 적기로 한다.

표 31.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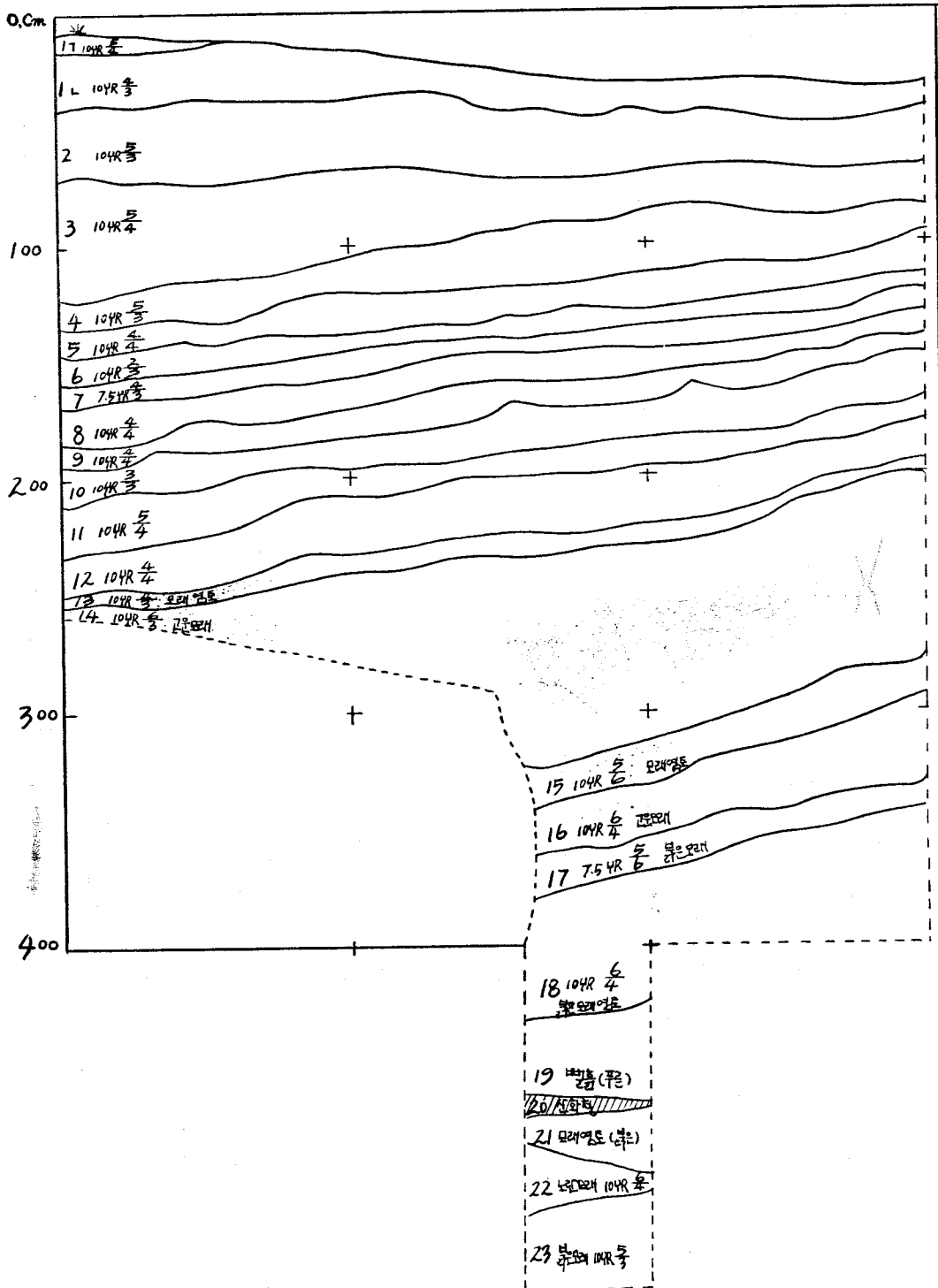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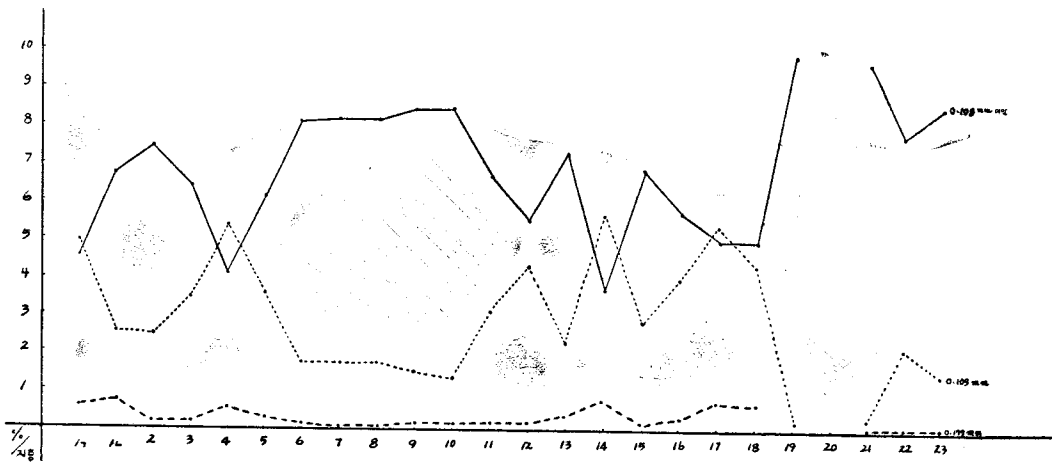


表 2. 제 3구덩 체 분석표

체번호	지층														
	17	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80번 0.177mm	5.75	7.75	1.75	1.75	5.0	2.25	1.0	0.5	0.75	0.75	0.75	1.25	0.75	3.25	7.25
150번 0.105mm	49.75	25.5	24.25	34.25	54.0	36.0	17.5	17.5	17.25	15.0	13.75	31.25	43.75	23.75	56.5
0.105mm 미만	44.5	66.75	74.0	64.0	41.0	61.75	81.5	82.0	82.0	84.25	85.5	67.5	55.5	73.0	36.25
비	고														

15	16	17	18	19	20	21	22	23
1.0	2.25	6.75	6.75	0.5	산화철	0.25	0.25	0.25
29.5	45.0	53.25	43.75	1.5	산화철	3.25	21.75	14.25
69.5	57.75	40.0	49.5	98.0	산화철	96.5	78.0	85.5
		목탄조	뿌리테	산화철				
		가		층				



第 4圖 제 3구덩 체 분석 결과

7. 양근리에서는 초기 청동기 유적지가 발굴되었고 의죽거푸집 (Open mould 용법), 토제단추, 지문이 있는 토기와 팔·콩 자국이 있는 무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로써 초기 청동기 시기에 이미 콩, 팥 등 잡곡을 심어 먹은 증거로 나타났다.

나. 양근리의 양평국민학교 일대와 비행장쪽은 아랫층으로 내려가면 염토층이 있고 구석기 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양덕리 근처에서는 수몰지역보다 높은 곳에서 뚜렷한 석영계 구석기 유물을 여러점 찾은 바 있으나 수몰지구가 아니므로 발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근리-양덕리 일대에서 찾아진 석기는 구석기 전통의 유물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문화층이 찾아질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고 하겠다.

르. 양근리의 무문토기 유적에서 (제 4구덩) 토기를 만들 때 쓰던 바탕흙 (胎土)으로 2가지 색깔의 것을 발견하고 토기 비치던 자리에서 목탄도 찾았다. 목탄은

현재 C¹⁴ 연대 측정을 의뢰하였고 바탕흙에서 고은 염토로 부드러운 것으로는 10YR $\frac{7}{6}$ 과 5YR $\frac{4}{6}$ 이고 불길에 달던 것으로 여겨지는 굵은 것에는 2.5YR $\frac{3}{6}$ ~ $\frac{4}{6}$ 에 해당하였다.

모. 제 4 및 5구덩에서 불찌꺼기흙 (pigment)과 금속분이 섞인 것으로 여겨지는 찌꺼기를 찾았는데, 이의 정성분석을 과학기술연구소 (KIST)에서 하여 본 결과 철 (Fe) 동 (Cu) -주석 (Sn) 망강 (Mn) 칼슘 (Ca) 소듐 (Na) 규소 (Si) 알루미늄 (Al)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양덕리에서는 청동기 시기 유물인 고인돌 (Dolmen, 支石墓)을 발굴하였는데 부토층 수평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찾아진 장제 (葬制)는 서구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새로운 연구의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즉 붉은 흙 (red ochre)을 시신의 위에 전면으로 뿌렸을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세계

진(彫刻) 예술품과 완전한 석영제 석기가 많이 출토되고 많은 고인돌이 묻혀있는 것을 찾아 내었다.

앞으로 발굴을 계속하여 더 밝혀질 우리 선사문화는 地質學者를 비롯한 여러 自然科學 분야의 협조가 있어

야 할 것을 바라 마지 않는다. 답사, 발굴에는 본 박물관 이 용조 연구원을 비롯하여 전원이 참가하였고 토양 체 분석에는 박영철, 한창균 두 연구원의 수고가 많았다.